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대학을  
통한 선교 접촉점 연구 및 사역  
보고

2005 MFR 훈련팀 8기

종합 보고서

# 목 차

제 1 장	MFR 소개	03
제 2 장	일정보고서	06
제 3 장	조사보고서	12
제 4 장	사역보고서	38
제 5 장	영적보고서	46

# 제 1 장

## MFR 소개

## 1 MFR이란?

Middle-East Field Research는 한동 아시아 지역 연구소의 산하 기관으로서 CFR(China Field Research) 와 SFR(South East Field Research), IFR(India Field Research), SPFR(South Pacific Field Research)와 함께 만들어진 지역 현장 조사 팀이다. 2001년 5월말 중동 지역을 위한 리서치팀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1기 MFR이 중동 5개 지역 리서치를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 2 MFR의 목적

MFR은 중동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중동 지역의 실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영적, 일반적인 상황과 필요를 알린다.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하여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며, 중동 지역의 중보자들과 네트워크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교 헌신자를 세우고 동원함으로써 중동 지역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MFR의 목표

Worshiper(예배자)

Field Researcher(현장 전문가)

Reporter(보고자)

Intercessor(중보자)

## 4 MFR의 연혁

2001년 5월, CFR 5기 훈련강의 가운데 중동지역으로 콜링

2001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8시~11시까지 정규모임 시작

2001년 12월 20일~2002년 1월 25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리서치

2002년 4월 4일 2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2년 7월 8일~8월 8일 터키, 이란 리서치

2002년 9월 18일 3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1월 7일~2월 5일 아랍 에미리트 리서치

2003년 4월 4일 4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7월 7일~8월 10일 요르단, 이라크 리서치

2003년 12월 27~ 2004년 1월 18일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서치

2004년 3월 25일 6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4년 7월 27일~8월 15일 이란 리서치

2004년 9월 23일 7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5년 1월 11일 ~ 2월 2일 훈련팀 7기 이집트 리서치  
2005년 3월 25일 8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5년 6월 29일~7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리서치

## 5 MFR 8기 훈련팀 구성

# 제 2 장

## 일정보고서

# 1 10주 훈련 및 합숙 일정

## 1) 10주 훈련

### (1) OT 및 1차캠프

●기간: 2005년 3월 25일 19:00 ~ 26일 16:00

●내용: HGFR SPIRIT을 공유하고 훈련생들과 섬김이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HGFR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였다.

●장소: 장성동 화목침례교회

시간	순서	담당자	준비사항
3월 25일 저녁 5:30~6:30	준비	김정현디렉터	장소 세팅 및 예배준비
6:30~7:00	중보기도	원종혁디렉터	
7:00~7:30	경배와 찬양	"	
7:30~7:40	캠프의 의미 소개	이구철간사	
7:40~10:00	크리스천 역사인식과 부르심	윤은성 목사님	강의, 예배
10:00~11:00	성찬식	김혁수 목사님	
11:00~11:30	교제 1: 전체 공동체	공동체별 디렉터	공동체별디렉터, 섬김이, 훈련생 소개
11:30~12:30	교제 2: 개별 공동체	각 공동체 디렉터	공동체별 나눔시간
12:30~	정리 및 취침	김정현디렉터	공동체별 취침장소정리
3월 26일 아침 ~7:30	기상	임승윤 간사	타임 KEEPER
7:30~8:00	아침 묵상	권효석디렉터	묵상말씀 및 묵상
8:00~9:00	식사 및 정리	김경진간사	
9:00~9:30	경배와 찬양	원종혁디렉터	
9:30~10:30	FR SPIRIT		
10:30~12:30	교제 3: 전체 및 개별공동체	김요셉간사	레크레이션
12:30~13:30	점심	김경진간사	
13:30~15:00	강의 2: 크리스천과 헌신 폐회예배	김혁수 목사님	폐회예배와 함께
15:00~15:30	청소 및 정리	곽미애,최소명디렉터	공동체별 담당구역

(2) 2차캠프

●기간: 2005년 5월 20일 19:00 ~ 21일 12:00

●내용: 전체 HGFR이 모여 말씀을 들은 후 각 공동체 별로 흩어져 시간을 사졌다.

MFR은 공동체 별 시간에 CR의 진행아래 미션팀, 훈련팀, 비전팀 전체와 씨니어들이 처  
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장소: 효암채플, 제1공대 103호

시간	순서	담당자	준비사항
6:30~7:00	중보기도	예배팀	
7:00~7:30	경배와 찬양	예배팀	
7:30~10:00	강의 I	김병선 선교사님	강의, 예배
10:00~11:00	HGFR 전체모임	이구철/박선아 간사	공동체별 소개 및 축복/공대 108 호
11:00~ 2:00	공동체별 모임	공동체별 CR 및 디렉터	교제
2:00~	정리 및 취침		
7:30~8:00	공동체별 Q T	공동체 별 CR 및 디렉터	식당 등
8:00~8:40	식사	공동체별	
9:00~9:30	경배와 찬양	예배팀	
9:30~11:30	강의 II	김병선 선교사님	
11:30~12:00	축복 및 축도	김혁수 목사님	

(3) 10주 강의

●기간: 2005년 3월 31~5월 26일

●내용:

FR 훈련	날자	강의	강사
2주	3.31(목)	십자가의 도 1	김학철 교수님
3주	4.7(목)	성경적 정탐	최광명 선교사 (AAP)
4주	4.14(목)	선교적 관점에서 본 지역연구 & 리서치 실습 1	김경미 연구원 (AAP)
5주	4.21(목)	십자가의 도 2	김학철 교수님
7주	5.3(목)	리서치 기법	장선주 연구원
8주	5.10(화)	선교축제 기간(말씀축제)	강요한 선교사님
9주	5.19(목)	공동체	김혁수 목사님
10주	5.26(목)		

●장소: 매주 목요일 학생회관 101호

(4) 리서치실습&지역연구

●기간: 4월 30일(토)

●내용: 주제- 사전조사를 통한 아프간의 고등교육 현황 및 정부의 정책 파악.

리서처로서 사전조사 시 인터넷을 통한 자료 찾는 방법을 배운 뒤 간단한 실습을 해보고, CIA에서 나온 Factbook Afghanistan편 을 조별로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교육현황 및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어떻게 진행 될지에 관한 각종 영문 자료들을 번역하여 전반적 이해 및 주제에 관한 사전조사를 함으로써 실제 리서치를 준비하였다.

●장소: 한동대학교 UA 425B

(5)그 외 훈련

①기도회

- 월, 금요일: 마라나타 열방예배, HGFR 전체 예배
- 화, 수, 토요일: 공동체 기도회
- 목요일: 1학기 HGFR 훈련팀 연합 기도회

②지역연구 모임

●장소: 선교센터

1주일에 한번씩 모여 지역연구 섬김이의 인도로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리서치를 준비하였다.

2) 10일 합숙 훈련

- (1) 기간: 2005년 6월 22일~6월 28일(MFR은 예정된 합숙기간 보다 이른 29일 아침에 출국)
- (2) 장소: 한동대학교
- (3) 내용:

2005년 1학기 HGFR 방학 합숙 시간표

시간/요일	22 (수)	23 (목)	24 (금)	25 (토)	26 (일)	27 (월)	28 (화)	29 (수)	30 (목)
6:00	기상 및 체조								
7:00	공동체별 QT					말씀통독	공동체별 QT		
8:00	아침 식사						아침 식사		
9:00		권리포기/	성령					글 없는	
10:00		재정강의	세미나					책	

11:00			이길수 목사님				(전도법)
12:00		점 심 식 사					점심식사
1:00		부서별 OT	성령 세미나 이길수 목사님	세계선교전략	공동체 만들기 (전국재목사님)		
2:00		위십					
3:00		위십					
4:00							
5:00							
6:00		저녁 시간					
7:00		성령					
8:00	개회예배/ 전체 OT	세미나				과 송 예 배 (9 시 30 분)	
9:00		이길수 목사님					
10:00	팀별 OT	10 시 기도회(공동체 별)	HGFR 전체기도회	공동체별기도회			10 시 기도회(공동체 별)
11:00	전략회의						
12:00	취침						

## 2 리서치 일정

2005/6/29 학교 떠남(10:30) 온누리교회(17:30)  
 인천 공항(18:15) 인천 떠남(21:30)  
 2005/6/30 두바이 도착(1:50) 송집사님택(4:00)  
 두바이 한인교회(10:00) 바닷가(18:35) 송집사님  
 택(20:00)  
 2005/7/01 두바이 떠남(6:40)-카불 도착(9:40)  
 ECC(11:25)  
 2005/7/02 카불 ECC 떠남(5:15)-칸다하르 백부장  
 님택 도착(13:00) 철지나계단(17:30)  
 2005/7/03 폴리클리닉(8:30) 칸다하르대학(9:35)  
 미르와이지사원 (17:40) 스포즈미 집(18:05)

2005/7/04 폴리클리닉 여성사역(8:00) 은혜유치  
 원 어린이사역(10:00)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  
 역(8:50) 파슈툼어 배움(20:00)  
 2005/7/05 폴리클리닉 여성사역, 어린이사역  
 (8:00)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역(9:00, 17:00)  
 스포즈미 집 사역(15:00) 파슈툼어 배움(20:00)  
 2005/7/06 폴리클리닉 여성사역, 어린이사역  
 (8:00)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역(9:00) 파슈툼  
 어 배움(20:00)  
 2005/7/07 난민촌 사역(6:40) 칸다하르대학교 컴  
 퓨터사역(9:00) 바바왈리(17:20)

2005/7/08 현지인 예배(11:00) 국제예배(17:00) 비택 방문(9:30) 유목민사역(10:30)  
 Fun Night (19:00) 2005/7/15 칸다하르 떠남(4:00)-카불 권선교사님  
 2005/7/09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역(7:30) 폴 게스트하우스 도착(12:20)  
 리클리닉 여성사역, 어린이사역(8:00) 파슈툰어 2005/7/16 쌀랑산맥(9:00-17:00) 씨야르집 방문  
 배움(20:00) (18:00)  
 2005/7/10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역(7:30) 폴 2005/7/17 권선교사님 아들 생일잔치(9:00)  
 리클리닉 여성사역, 어린이사역(8:00) ECC(13:10) 카불 떠남(16:00)-샤자 도착(19:00)  
 2005/7/11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역(7:30) 폴 2005/7/18 두바이 한인교회 특송(8:00)  
 리클리닉 여성사역, 어린이사역(8:00) 2005/7/19 두바이 한인교회(9:30) 사과리(14:00)  
 2005/7/12 칸다하르대학교 컴퓨터사역(7:30) 칸 2005/7/19 두바이 박물관(9:00) 사자대학(11:45)  
 다하르대학교 러브피스트(17:00) 두바이 떠남(17:40)  
 2005/7/13 칸다하르대학교 교수님 인터뷰 및 노 2005/7/20 인천 도착(8:40)-학교 도착(16:20)  
 트북 전달(10:30) 어린이사역(15:30) 현지인집 1  
 박(19:00)  
 2005/7/14 백부장님택 귀가(8:00) 닥터 아르간다

### 3 보고서 합숙

	7/22 (금)	7/23 (토)	7/24 (일)	7/25 (월)	7/26 (화)
8:00	큐티				
8:50	아침				
10:00	부별보고서	주제보고서		주제보고서	앞부분
12:30	점심				
14:00	부별보고서	주제보고서		주제보고서	부록, 마무리
18:30	저녁				
19:30	부별보고서	주제보고서		주제보고서	
20:00	주제 보고서 토론(해석, 분석, 컨텐츠완성)				
22:00	예배				
23:00	전략회의				

# 제 3 장

## 조사보고서

## 1 조사목적

칸다하르 대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에 알려져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칸다하르 대학으로 간다. 그것을 위해

첫째, 한동대학교 및 다른 외부의 단체들이 칸다하르 대학의 선교적 중요성을 알아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칸다하르 대학의 선교적 중요성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한다.

둘째, 현재 칸다하르 대학의 실태(재정, 학사운영, 교수Quality 등)를 파악한다.

셋째,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 2 조사방법

### 1) 조사표

- 무엇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지, 그 자료를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는지 자료 조사 전에 토의하여 표로 작성(2005년 6월 30일).

<조사표>

질문분류	질문대상	질문
시설	교수님, 학과장, 학생들, 선교사님, NGO	건물이 몇 개이고 용도는?
		도서관-크기, 좌석수, 책, 이용자 수, 운영시간
		기숙사-방 수, 방 당 인원수, 어떤 시설이 있는지(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기숙사비, 수칙
		식당-식당규모, 좌석수, 운영현황, 이용률, 시설, 위생현황, 도구
		모스크-채플있는가(의무), 다른 용도,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여성시설-화장실, 기숙사, 탁아소
		실험실, 전산실, 어학실 등 특수시설
		교수님 office, 직원 휴게실, 연구소
		복지 시설-체육관, 강당, 운동장, 매점, 보건실
		계획
학생		입학-입학기준, 총인원수, 학년당 인원수, 성비, 출신지역, 학생수에 대한 계획, 학생 연령, 미혼/기혼 비율, 지원동기
		수업-학점제(전공별 이수 학점), 출석률, 시간표
		근로학생, 장학금, 교환학생
		졸업기준, 진로 및 취업현황, 졸업생 현황
		학생기구, 학생단체, 동아리, 학생신문
		학교 만족도, 적응도
		복지-보건실

교수	커리큘럼-전공수, 전공당 학생수, 연계 복수 부전공, 전공당 필수학점, 학사일정, 전공선택이유
	축제, 문화프로그램
	수업 외 여가시간에 하는 것
	인원수, 학력, 성비, 전공, 지원동기, 월급, 충원상황, 전임/강사 비율, 출신, 연령대, 거주지
	연구비, 연구실, 오피스
	학생과 교류(시간, 모임)
	필요한 교수, 교수기준, 정년
	바라는 점, 만족도(학생들에 대한)

## 2) 인터뷰

-칸다하르 대학의 교수님들을 인터뷰 하여 칸다하르 대학의 운영과 교수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음.

-인터뷰 전에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여 영어로 번역해감.

-인터뷰는 칸다하르 대학 교수들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후 행해짐(2005년 7월 13일).

### <질문지>

대상:	인원수, 학력, 성비, 전공, 지원동기, 월급, 충원상황, 전임/강사 비율(full time), 출신, 연령대, 거주지
교수	연구비(research funds), 연구실(study room), 오피스, 재교육(reeducation)
	학생과 교류(시간, 모임), 교수간 학술적 교류(interchange, exchange between-)
	필요한 교수, 교수기준, 정년(full age)
	바라는 점, 만족도(학생들에 대한) be satisfied
	①칸다하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What dose kandahar univ. need for development?
	②칸다하르 대학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해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What is a merit of kandahar univ.? Are there any prospective parts?
	③남쪽에서 칸다하르 대학에서 어떤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나? What's the reason that kandahar univ. is important?
	④칸다하르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가?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univ.?
	⑤칸다하르 대학교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re there any troubles against development of kandahar univ.?
	⑥계속 칸다하르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은가? 이유는? Do you want to teach in this univ. continuously? Why?



<p>크, 휴게실 등)          ①만족 ②불만족          (이유:_____)          3)현재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며, 그 이유는?</p>	
<p>Major(faculty):          Grade(class):                      Age:          * You know that Kandahar University established sisterly relationship with Handong Global University. We are MFR(Middle east Field Research team) under CAAS(Center for Asia Area Studies) in Handong University, and we want to know the situation and the need of Kandahar University for maintaining the cooperation and support.          1. The degree of satisfaction          (1) The quality of class: (Select one.)    <input type="checkbox"/> high    <input type="checkbox"/> middle    <input type="checkbox"/> low          1) The number of students per professor          ① satisfying      ②unsatisfying          (Why?_____)          2) The curriculum (The course of study)          ① satisfying      ②unsatisfying          (Why?_____)          3) The materials for class (computers, books, projectors, etc.)          ① satisfying      ②unsatisfying          (Why?_____)          (2) Facilities of school:    <input type="checkbox"/> high    <input type="checkbox"/> middle    <input type="checkbox"/> low          1) Facilities of study (library, classroom, lab, computer room, etc.)          ① satisfying      ②unsatisfying          (Why?_____)          2) Facilities of living (hostel, cafeteria,</p>	<p>Major(faculty):          Grade(class):                      Age:          * You know that Kandahar University established sisterly relationship with Handong Global University. We are MFR(Middle east Field Research team) under CAAS(Center for Asia Area Studies) in Handong University, and we want to know the situation and the need of Kandahar University for maintaining the cooperation and support.          1. What do you want to get from “University”?          2. What’s the reason that you applied and entered Kandahar University?          3. What’s the reason you chose your major(faculty)?          4. What kind of work do you want to do by using your major after graduation?(What’s your plan after graduation?)          5. Do you want to go abroad for studying? Why?          (1) After studying abroad, will you come back to your country or not? Why?          ** Is the computer lecture about power point good to you? Do you want any other course?</p>

bathroom, resting place, etc.) ① satisfying    ②unsatisfying (Why?_____) 3) What facilities do you need most? Why?	
--	--

### 3 조사내용

#### 1) 아프가니스탄 개관

##### (1) 일반정보

- ① 국명: 아프가니스탄 회교 과도 국(Transitional Islamic State of Afghanistan)
- ② 면적: 647,000km<sup>2</sup>(한반도의 약 3배)
- ③ 인구: 2,850만 명(2004년 추정치)
- ④ 인종: 아리안계 파슈툰족(38~44%), 타지크족(25%), 하자르족(10~19%), 우즈베크족(6~8%) 등
- ⑤ 종교: 이슬람교 99%(국교, 수니파 80%, 시아파 19%)
- ⑥ 수도: 카불(인구: 350만 명, 2004년 추정치)
- ⑦ 주요도시: Kandahar, Herat, Mazar-e-Sharif, Jalalabad
- ⑧ 언어: 파슈툰어(35%), 아프간 페르시아어(다리어, 50%) 및 기타 우즈베크어 등
- ⑨ 평균수명(2002년 추정치): 46세(남자), 45세(여자)
- ⑩ 유아 사망률(2002년 추정치): 1,000명당 144명
- ⑪ 시차: 한국보다 4시간 30분 늦음.

##### (2) 정치

- ① 국가성립: 1919.8.19 영국으로부터 독립
- ② 정부형태: 공화국(대통령: Hamid Karzai)

##### (3) 경제

- ① GDP: US\$ 44억(2002년도 추정치)
- ② 1인당 GDP: US\$ 170(2002년도 추정치)
- ③ 화폐단위: 아프가니(49 Afghani US\$ 1)
- ④ 주요산업: 소규모 가내수공업(섬유, 가구, 신발, 카펫 등), 광업(천연가스, 석탄), 농업(밀, 과일, 양모 등)

##### (4) 기타

- ① 지정학적 위치: 서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 서쪽 방면으로는 이란, 남동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우즈벡, 타지크, 투르크메니스탄과 각각 접경.
- ② 지형특색: 아프가니스탄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임.
  - 국토의 약 2/3가 산악지대
  - Kandahar로부터 서쪽으로는 사막지대
  - 카불은 해발 1,770m 고지에 위치
  - 국토 일부분만이 경작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 국토가 농업에는 부적합함
- ③ 기후: 대륙성 기후로서,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춥고 상대적으로 습한 편 (강수량은 겨울에 집중)
  - 카불: 여름 최고기온(35~40), 겨울 최저기온(-5~0)
  - 지방 산악지대(겨울 최저 -35) 및 사막지대(여름 최고 55) 강수량은 극히 적어 연평균 1,000mm 수준
  - 98~2002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 농업용수 등이 절대 부족하였으나, 2003~4년 강우(강설)량 덕분에 지난 5년간의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관찰됨.

(5) 현지 준비사항

① 사증(비자)

● 사증신청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국민은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는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연락처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 101호

전화번호: (02)793-3535

FAX: (02)795-2662

② 아프가니스탄 입국 시 항공노선

● '서울-뉴델리-카불'

- '서울-델리' 간 아시아나 직항이 주2회(서울-델리: 화, 목 / 델리-서울: 월, 금) 있으므로 편리하고 현재 최단거리 노선임.

뉴델리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있음(사증발급 2~3일 소요)

인도 입국을 위해 인도비자(double visa) 필요

델리-카불(월, 수, 토) / 카불-델리 (일, 화, 금)

● '서울-두바이-서울'

주2회 대한항공 운항(화, 금)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는 '두바이'가 아닌 '아부다비'이며, 아프가니스탄 대사관도 수도인 아부다비(두바이에서 택시로 1시간 반 소요)에 위치하고 있음.

우리 국민은 아랍에미리트 입국 시 비자 필요 없음(단기체류).

두바이-카불('목' 제외 매일) / 카불-두바이('월' 제외 매일)

● 기타 노선

- '서울-테헤란(이란)-카불'

'서울-북경-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카불'

'서울-북경-우르무치(중국 신장지방)-카불'

(6) 식품

- 한국식품: 약간의 품질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연식품원료(쌀, 야채, 과일 등)는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구할 수 있음.

- 그러나, 배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우리나라 고유 식품은 구할 수 없고 인근 국(두바이, 아슬라마바드)에서 조달해야 함.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이 있으며 생선은 외국에서 냉동 식품으로 수입되므로 신선도가 떨어지며 가격도 비싼 편임.

(7) 건강진단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으므로 입국 전 건강검진을 미리 받는 것이 바람직함. 아프가니스탄의 수질은 고농도의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고, 살균정화처리 시설이 미흡하여 생수 구입 사용. 카불지역은 연중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심한 황사, 매연 등으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함. 응급환자 발생시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210-2481 / 영사휴대폰 07028-0189) 바그람 주둔 아군 의료부대에서 치료를 받거나, 국제치안유지군(ISAF) 군부대내의 독일병원(민간인의 경우 응급환자 외에는 이용불가)에서 간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8) 기후 및 의복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등 추운 날씨임. 겨울철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혹한은 없으나, 주택의 난방시설이 미비 되어 있고 겨울철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체감온도가 실제온도보다 훨씬 낮은 편임 (전기요, 침낭 필요). 현지 양복점, 구두 판매점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의류 스타일과 많이 다르므로 입국 전 필요 의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바람직함. 여성의 경우, 종교 및 관습상 과도한 노출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외출 시에는 소매 없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은 가급적 삼가야 하고, 여름철에 남자의 경우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9) 이사화물

①전기, 전자제품 및 가구

- 전기: 220V / 50Hz
- 전압이 불안정하여 변압기 사용이 필요하며, 겨울철 전열기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 수시로 정전 사태 발생(발전기 사용으로 소음 및 진동이 심함)
- 냉장고, 냉동고, TV, VCR, 에어컨 등 웬만한 전기제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입 가능

### ②자동차

- 카불 시내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치안사정을 고려 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국제운전면허증 필요).
- 치안 불안정 및 교통망 미비 등으로 카불 이외 지역으로의 여행은 쉽지 않음.
- 자동차 구입시 약 US\$ 500 등록세 납부

### ③기타 필요물품

- 카불시내 약국이 있으나 기본 의약품 구입이 어렵고 외국인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으므로 미리 약품을 준비 하여 오는 것이 필요함.
- 한국 식품점이 없음을 감안, 가급적 한국 식료품(특히 고추장, 된장, 조미료류)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유리함
-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영하 5도 정도) 주택 난방시설이 미흡하므로, 전기담요 및 Sleeping bag을 가져올 경우 유용함.

## (10) 도착 후 참고사항

- 주택: 주택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쳐 임차료가 고액임.
  - 외교단지 부근 안전지역 월 임차료는 US\$ 4,000 이상이나 적절한 주택을 물색하기가 극히 어려움
  - 기타 카 불시 외곽지역은 월 US\$ 400 ~ 1,500 정도이나 전력, 수도 공급이 극히 제한적임.
- 식품: 현지에서는 한국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구할 수 없음.
  - 쌀은 한국 쌀과 비슷한 호주 쌀 구입 가능 식품 기본재료(밀가루, 야채, 과일 등)는 저렴하고 풍부한 편임.
- 교육: 현지어(다리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음 (카불대학 내에 외국인을 위한 현지어 강습 있음) 자녀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로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1-2 개의 소규모 학교가 있을 뿐 전무한 실정이며, 2004.2월 카불 주재 한국 NGO 종사자들에 의해 동반자녀들을 위한 '카불한글학교'가 개교됨(학생수 15명이며, 국어, 산수,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교육)
- 자동차: 중고 자동차시장이 성업 중이며 대부분 일제자동차로 US\$ 4,000 (승용차) ~ \$10,000(4륜구동 지프) 정도 가격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등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리점 에서 신차 구입도 가능함.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교부 받아 오거나 아프가니스탄 교통기관에서

-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함. (제한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주재국 운전면허를 무시함 발급하는 경우가 있음).
- 공항: 근래 아프가니스탄 원조 및 재건사업 관련 종사자, 사업 투자자 등 외국인 유입 급증으로 항공 수요가 많이 증대되었으나 공항이 낡고 협소하여 출입국시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공항 시설의 낙후로 기상변화에 따라 항공기의 연착 및 결항 등 사태 빈발
    -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일기가 불순, 겨울철에는 거의 매일 결항, 연착 사태 발생
  - 쇼핑: 대형 쇼핑단지, 백화점 등 상가시설 없음. 재래식 상가 거리(Chicken Street)에서 골동품이나 귀금속(품질 조잡) 구입이 가능.
  - 식당: 호텔(인터콘티넨털) 뷔페, 한국식당(아리랑하우스 93-7-919-9509), 중국식당, 독일식당, 태국식당, 이란식당, 인도식당 등이 영업 중(일본식당 없음) 현지 식당도 다수 있으나, 대표적인 서너 곳 외엔 위생상태가 열악하여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음.
  - 호텔: 대표적 호텔로 인터콘티넨털 호텔이 있으나 지은 지 오래되고 오랜 내전기간 동안 파괴되어 최근 내부수리에도 불구하고 객실은 일반 모텔 수준(1박 최저 US\$ 85) 카불 시내에 장 여관 급 호텔로 Kabul International Hotel과 Mustafa Hotel이 있음(1박 US\$ 45 ~ 60). 한국인 게스트하우스(93-7-900-7551) 등 다수의 Guest House가 성업 중이며 요금은 평균 1박 US\$ 50
    - 여성의 경우 호텔 투숙 시 치안상태 고려 필요
  - 관광: 카불시내 관광은 가능하나 기타 지역은 자유로이 관광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바미안 석불 관광
    - 자동차로 편도 9시간 정도 소요되며 전구간 비포장 도로임.
    - 항공기(UN기) 주2회 운항
    - 치안상태가 완전치 않으므로 특히 유의 요망
  - 종교활동: 아프가니스탄은 회교국이며 국민 절대다수가 회교도임. 성당, 교회, 사찰 등은 일부 외국 군부대나 대사관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없음. 회교 외에 타종교의 선교활동은 불가능하며, 동일종교인 간의 내부적 집회 활동은 가능.
  - 언론매체: 현지 영자신문으로 Kabul Times(정부기관지), Kabul Weekly가 있고 기타 다수의 현지어 신문 및 라디오, TV 방송이 있음. 다수의 외국 언론사 특파원 상주
  - 치안상태: 카불시 지역은 국제치안유지군(ISAF) 및 아프가니스탄 군경의 치안유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치안사정은 불안하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테러공격 위협이 큼. 산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강도와 절도사건

도 이어지고 있음.

- 2003년~2004년간 한국 NGO 종사 교민들로부터 주거침입 절도사건, 야간 주거 침입 강도사건(총기 휴대), 택시 강도사건(총기 휴대) 등 3건의 피해보고가 있었음.
- 2004년 5월경 카불 시내에 위치한 유명 유원지에서 스위스 국적의 외국인 2명이 피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 카불시 거주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음.
- 2004년 8월 29일에는 카불시 중심가에서 탈레반에 의한 차량폭탄 공격으로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함.

아프가니스탄 북부 및 중부지역은 외국인에 대한 테러공격 빈도로 볼 때 비교적 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부 및 남동부 지역은 현재 동맹군에 의한 대 테러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전시상태로 위험지역임.

● 대사관

주소: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Wazir Akbar Khan, Street No. 10,  
Second Road, lefthand, House No. 83

전화번호: 873-7627-28479(위성전화), 9320-210-2481(일반전화)

비상연락전화번호(영사 휴대전화): 93-7028-0189

FAX: 873-7627-28481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fat.go.kr/afghanistan/>

근무시간: 일요일 ~ 목요일까지: 오전 8:30 ~ 오후 5:00

● 재외동포현황(체류자)

- 비 정부기구(NGO) 종사자: 장단기 체류자 총 100여명 체류

● 우리기관 및 상사현황

한국대사관: 직원 3명, 업무보조원 1명 체류

한국 국제 협력 단(KOICA): 직원 2명

상사 주재원: 삼환기업(18명), 삼림건설(4명), 기정건설(1명) 등

● 교통, 통신, 우편제도

- 교통: 카불지역 외 교통망 미 정비로 지방 육로여행이 어려움 카불 시내에는 택시, 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은 주로 자가용이나 택시 이용 아프간 국적기 Ariana가 파키스탄, U.A.E(두바이), 인도, 터키, 독일 등지 운항 수도 카불과 주요 지방도시간 유엔기 운항(소형 프로펠러기)
- 통신: 정부에서 유선 전화통신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전화 통화 시 감도가 떨어지거나 불통되는 경우가 많고 회선이 불충분 하여 전화가입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서 연결되는 등 통신상황이 열악한 편임. 무선전화 통신사업자로서 AWCC 및 ROSHAN 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자주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통화가능 지역이 카불 시내로 제한되는 등 사용상 문제점이 많음.
- 인터넷 사용: 카불시내 인터넷 카페가 다수 있으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용료가 고액임.

\* 한국과 아프간간 일반우편의 경우 아프간에서 한국으로의 발송은 가능하나, 현재(2004년) 한국에서 아프간으로의 발송은 불가능함.

\_ 월 사용료: US\$ 300 - 3000

- 우편제도: 이라크 전 당시 잠시 중단된 적이 있으나 현재 아프가니스탄 우편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타, FedEx, DHL, TNT 등 운송업체가 영업 중

● 어학교육기관 및 학원

카블 시내에 다수의 영어회화학원이 있으나, 교사 부족으로 수준이 낮은 편임.

외국인을 위한 현지어 과정이 카블대학내에 개설 중임.

● 긴급상황 대처요령

긴급상황 발생시 한국대사관으로 연락 취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육로교통을 통해 입국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수속 및 송환 등 관련 대사관 도움을 받은 사례 있음.

- 비상연락처: 전화 93-20-210-2481 / 휴대폰 93-7-028-0189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지어 외에 영어 등 외국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음 입국하는 방문객은 가급적 통역 대동 요망 택시 강도 피해방지를 위해 가급적 야간에는 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합승을 피할 것 입국 전 반드시 여행자보험 가입 요망

- 상기 교통사고를 당한 한국인 2명의 경우 현지에서는 사고택시 운전자 등으로부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나, 국내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

- 가급적 테러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

● 기타 일반사항

- 환전: 미화를 현지화(Afghani)로 환전 시 통상 길거리 환전상 이용

환율: US\$ 1 = 45 아프가니(Afghani)(2004.10월 현재)

- 미용 및 이발: 남자 이발소와 여자 미용실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 시내에 위치한 미용실, 이발소의 경우 위생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외국인이 이용하는 경우 현지인보다 고액의 요금 요구

- 약 100-200 Afghani (US\$ 4.2)

\*현지어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 대동 필요

- 공휴일: 여타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금요일이 휴일이며, 목요일은 오후 휴무함.

- 2.11~2.14 Eid Adhah - 매년 10일 앞당겨짐(부정확)

- 3.13 Religious Day (Mahram)

- 3.21 New Year's Day

- 3.24 Religious Day (Ashoorah)

- 4.28 Victory Day
  - 5.13 Religious Day
  - 8.19 Independence Day (1919)
  - 9.9 Massoud 장군 순교 기념일
  - 11.6 Religious Day(Ramazan) - 매년 10일씩 앞당겨짐(부정확)
  - 12.6~12.8 Eid Feter - 매년 10일씩 앞당겨짐(부정확)
  - 한국과의 시차: 한국보다 4시간 30분 늦음.
  - 한국신문 구독 가능성: 한국신문 구독은 불가능하나, 친지 등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는 있음. 기타 Herald Tribune, Times, Economist 등 외국 신문잡지 구독은 가능하나, 구독료가 비쌈. (예: Herald Tribune 월 US\$ 100 정도)
  - 주요기관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은행, 우체국, 박물관 등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오전 8시~ 오후 4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 - 금요일 휴무, 목요일 오후 휴무함.
  - 이발소: 대략 오후 7시 30분까지
  - 슈퍼 등 상점: 이른 아침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 전력사용 현황: 가전제품은 220V 사용 아프가니스탄의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실제 220V 전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으며, 단전사태 수시 발생으로 발전기 및 전압안정기 사용이 필수적임.
  - 인터넷 사용환경: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Neda)가 현재 독점적인 관계로 설치비 및 사용료가 비쌈.
  - 설치비: 전화선 이용 시 설치비 없으며, 무선 인터넷 설치 시  
US\$ 2,750 ~ 5,000
  - 사용료: 월 US\$ 300 ~ 3,525 (속도에 따라 요금 상이)
- 카불 시내 다수의 인터넷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 속도, 컴퓨터 성능 등의 문제로 이용이 불편함.

## 2) 칸다하르 개관

### (1) 칸다하르 지역 개관

- ① 칸다하르: '달콤한' 이라는 뜻이다.
- ② 위치: 아프가니스탄 남부, 수도인 카불의 남서쪽 500km에 위치, 헬만드강 상류 아르간다브강과 타르나크강 사이에 있는 해발고도 1,100m의 선상지에 위치한다.
- ③ 면적: 아프간에서 면적상 두번째로 큰 주, 2/3가 사막이다.
- ④ 인구: 현재 약 50만명으로 추정
- ⑤ 유적

- Mir wais 무덤 : 아프간의 파쉬툰족들을 연합시킨 왕의 묘
- Ahmad Shah Durrani(baba)의 무덤 : 아프간의 아버지이며 아프간을 세운 왕
- Baba wali : 1900년경 3차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혜롭게 싸워 승리
- Kherqa sharif ziara : Ahmad Shah Durrani(baba)는 1768년 모하마드의 코트를 받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 건립
- Shahidanu chawk : 전쟁에서 죽은 이슬람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비, 기와 작은 대포들로 둘러 쌓였고 1946~1948년에 세워짐
- Id gad mazit : 탈레반의 지도자인 몰라 오마르가 세움
- Chihzina(40 steps) : 40개의 계단
- Old city : buddhas begging bowl, 흰두교적 물건

## (2) 칸다하르 역사

시의 기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때는 '아라코시아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Arachosiorum)'라고 하였다.

BC 159년경 파르티아왕 미트리다테스 1세(BC 171~138)에 의해 정복당함. AD 50년경 쿠산족의 쿠줄라 카드피세스는 아프간 지역의 그리스계 왕조를 타도하고 카불, 칸다하르 지방에 진출하였다. 16세기에는 바부르의 무굴 왕조에 의해 지배되었고, 17세기에는 페르시아의 아바스 1세에게 정복당했다.

18세기에 근대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흐마드 샤가 세운 두라니왕조에 의해 1747~73년까지 수도로써 카불과 함께 번창하였다. 시내에는 아흐마드 샤의 묘를 비롯하여 유적이나 성채가 많다.

이후 바라크자이왕조(1819~1973)에 의해 다스려졌는데, 바라크자이왕조 시기에 칸다하르는 영국과의 전쟁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전쟁에도 불구하고 영국에게 항복하지 않음으로써 아프간은 기본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인도에게 일부의 영토를 할양했던 아프간은 1919년 3월 인도 정부로부터의 연금이 폐지되고 외교지도권 폐지가 약정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독립한 이후, 1933년 자히르 샤 국왕의 통치가 시작 후 왕권이 잠시 유지되었으나, 1973년 7월에는 국왕의 사촌 다우드 전 총리의 쿠데타가 일어나, 공화제를 선언한다. 이후 칸다하르에서는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항해 1994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탈레반이 등장하게 된다.

이후 칸다하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근거지로 알려지게 되고 실제로 2001년 미국의 침공 이후에도 아직까지 칸다하르 주변에서 탈레반의 잔당들이 출현하고 있다.

## (3) 칸다하르 정치

- 전쟁 복구의 강한 의지로 인해 여러 NGO들과 구호단체에 대해 우호적이다. 대통령(친미), 지도 세력들(유학파)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 카불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칸다하르에서는 과거북부동맹 집단이 약탈자의 이미지로 인식되어지기도 했으며 부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2002년 과도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칸다하르는 중앙정부의 통제보다는 지역의 군부의 힘이 더 강하게 미치는 지역이다.

#### (4) 칸다하르 경제

- 과일이 자라기에 좋은 기후이기 때문에 과일장사가 많다. 의사들 중에도 수입이 적어 진료 이후 과일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칸다하르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에는 농업발전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만큼 칸다하르가 농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주유소가 곳곳에 많이 보인다. 석유가 나지 않는 땅이라고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중고차들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주유소 또한 많이 들어서게 된 것 같다.
- 한 직업만 가지고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사람이 2-3개 직업 갖는 것은 기본이다. 대부분의 직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30~50\$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 NGO에 들어가 일할 경우 100~200\$정도의 월급을 받아 외국 NGO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현지인들은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NGO에서는 컴퓨터와 영어를 잘 사용하는 현지인을 고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 의사의 수입은 알 수 없다. 진료비는 무료이지만 일부 약값에 한해서 돈을 받는 병원이 있다고 한다.
- 현지인들은 구걸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에서 선행을 강조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1~5 아프가니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돕는다.

#### (5) 칸다하르 사회

##### ①민족

- 주민은 아프간족과 타지크족이 반반이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일하게 파슈투어를 공통어로 쓰는 도시이다.
- 남부 사막에는 발루치 종족이 살고 있다. 유목 민족이고 위험하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단체가 없다. 때문에 구체적 정보 또한 거의 없는 상태이다.

##### ②치안

- 탈레반 세력회복을 위해 물라들이 현지인들 중 외국인을 숨기거나 좋게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 외국인들처럼 죽이겠다고 선포한 일이 있었다.

- 아직도 퀘타(파키스탄)와 같은 산악 지대에는 탈레반 잔당이 있다. 이들에 의한 테러는 계속되고 있다. 한때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 10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점점 테러의 빈도가 늘어가고 있다.
- 백인들도 밤에 잘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소문이 과장되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칸다하르 외곽은 위험하다고 하여 낮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마다 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역을 더 강하게 묶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③여성

- 탈레반 정권 이후에도, 부르카 쓴 3여인이 소리 내서 웃다가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음.
- 남성과 여성 단들이 대화하지 않는다.
- 실질적으로 가사활동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남성우월주의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 관공서에 여성이 있으나 전시용이고, 그들도 파키스탄 등의 외국으로 이주를 희망한다.
- 오랜 전쟁으로 인해 현재의 평화가 언제 다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다. 때문에 남성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이유도 있지만 전쟁과 탈레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르카를 벗지 못하고 있다.
- 칸다하르내에 있는 놀이공원은 남녀가 사용하는 날이 틀리다.

### ④교육

- 재교육 시설은 있으나, 취업여건이 준비 안 되어 있다.
- 카르자이가 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학생들에게 3가지 중요정책 내세웠다. 컴퓨터, 영어, 운전면허는 필수적으로 공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 칸다하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고 현지(칸다하르)학생들의 수는 적다. 탈레반 시대의 영향이 비교적 길게 미친 지역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없었다.
- 현재 칸다하르 지역에 34개의 여학교가 있으며 22000명의 여학생들이 있다.
- 여학교가 많은 이유는 사회주의 교육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학교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다.

### ⑤국제적 협력 및 NGO

- 쓰레기 NGO 필요 : 이곳에 이미 있어서 차가 밤에 다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수집은 하고 있다)
- 고아원 사역하고 있는 NGO는 없다. 북부 쿤드즈에는 고아원이 있으나 고아가 있어도 친척들이 남에게 맡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가 키우는

경우가 많다.

- 칸다하르에서는 교도소 한곳이 운영 중이다.
- 일본 JICA 간판을 길 곳곳 마다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이 많이 협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질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다. 하지만 기간산업위주로 정부 대 정부의 지원 뿐,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없다.
- JICA: 일본국제협력사업단은(이하 JICA) 동티모르에서의 기반시설 복구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본부를 열고 다음의 5가지 영역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복구를 돕고 있다.
  - 건강과 의료진료
  - 교육
  - 미디어 인프라 구축
  - 여성지원
  - 그 외 사업
- DAFA, OMAR : 지뢰제거 NGO

[http://www.landmines.org.uk/countries/minefield\\_clearance/afghanistan](http://www.landmines.org.uk/countries/minefield_clearance/afghanistan)참고

## (6) 칸다하르의 문화

### ①종교

- 수니 이슬람, 헬레니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섞여 간다라 문화를 이룬(Mix된 이슬람)
- 물라 오마르 모스크(아프간 남부 최대규모), 6년 전부터 건설 시작, New Kandahar Univ.에 세워지고 있는 이 사원의 특징은 돔의 각도를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절하여 만들어 작은 소리만 내도 그 울림이 굉장한 것이다. 소리가 위엄을 더하고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기 위한 설계인 듯하다.
- 현지인 그리스도인: 카불(300 가정이상), 헤라트(200가정-추정). 이외에도 다른 큰 도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NGO 단체에서 일하는 현지인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물론 진정한 크리스천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거짓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칸다하르에는 아직까지 알려진 그리스도인은 1~2가정뿐이다.

### ②결혼

- 남성이 여성을 돈으로 사는 문화
- 이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하여 자정이 지난 시간에 결혼식을 하고 밤을 새며 계속된다.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두 번에 나눠서 한다.
- 여성의 가정봉사
- 일부 다처제, 4명의 아내까지 가능, 지참금 (약 2000\$), 고가의 결혼 지참금으로

인해 친척끼리 싸게 여자를 매매한다고도 한다. 또한 일부다처제의 문화에 의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수가 많이 적어져 많은 수의 동성연애자가 있다고 한다.

③음식

- 5번의 아잔 소리를 기준으로 하여 식사를 함
- 가부장적 식사문화
- 가족을 제외하고 성별로 식사

3) 설문 조사

(1)-1 전공: Medical 13명

1. 만족도

(3) 수업의 질: 상3, 중8, 하1 무응답1

4) 교수당 학생수

①만족2 (이유: 무응답, 급우가 많다.)

②불만족9 (이유: 우리학부에 교수가 없다, 칸다하르에 어떤 교수도 없고 단지 1명의 도움이 되는 한 교수가 있다, 젊은 교수가 필요가 필요한데 교수가 없다, 교수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 교수 1명당 학생 50명이다, 한 학급당 학생 수는 많지만 교수가 없다, 우리 수업에는 62명의 학생이 있고 단지 1명의 교수만 있어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무응답2

5) 커리큘럼

①만족6 (이유: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종류에 대해 만족한다, 지금까지 학습과정이 좋았다, 이 학문은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아는데 도움을 준다, 이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②불만족6 (이유: 수업 후에 시간이 있지만 컴퓨터 및 영어강의가 없고 우리 학부에 대한 보충 수업과 컨퍼런스가 없다, 전문적인 교수들이 없다, 한 학기에 커리큘럼이 다 끝나지 않는다, 어떤 좋은 교수님도 없다)

무응답1

6) 수업 자료, 기자재

①만족4 (이유: 무응답3, 많은 자료를 수업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것이라 선생이 필요하지 기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②불만족8 (이유: 없음, 약간 있기는 하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컴퓨터 같은 것이 없고 책도 있지만 도서관을 열어 줄 사람이 없다, 있긴 있는데 문제는 전문적이지 못하고 좀 더 진보된 것이 필요하다,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 컴퓨터와 책이 있으나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학교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 자료가 있으나 사용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책하고 컴퓨터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1

(4) 학교 시설: 상, 중8, 하4 무응답1

1) 수업 시설(도서관, 강의실, 어학실, 전산실, 실험실 등)

①만족2 (이유: 무응답, 미국인이나 한국인들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②불만족10 (이유: 배우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보다 도서관이 더 나은데 그것이 부족하다, 컴퓨터와 스크린 어떤 시설도 아직 본 적이 없다, 완벽한 시설이 없다, 도서관과 교실과 컴퓨터실이 있지만 항상 잠겨져 있고 공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없다, 대학교의 어떤 부분들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제시간에 문을 안 열어 준다, 올 때마다 문이 잠겨있다.)

무응답1

2) 생활 시설(기숙사, 식당, 화장실, 모스크, 휴게실 등)

①만족1 (이유: 문제 없다)

②불만족10 (이유: 정보로부터 어떤 집중도 못 받고 있다, 기숙사와 화장실이 좋지만 학생 식당이 좋지 않고 휴식공간이 없다, 시설이 부족하고 지식이나 쉼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대학교의 어떤 시설도 없다, 30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없다, 쉼 곳이 없고 침대가 충분하지 않고 침실에 물이 없다)

무응답2

3)현재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며 이유는?

무응답1,

공부와 생활하는 것과 스포츠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외부 세계의 학생들에게 우리를 알리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다른 세계의 대학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2000년까지 우리에게 어떤 시설도 없었지만 지금 작은 시설이라도 있어서 우린 행복하다, 밝은 미래를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과 컴퓨터와 배우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 좀 더 전문적인 의학책이 필요하고 의학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수업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고 지식과 경험 있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적절한 도서관과 경험있는 교수와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높은 수준의 실험실이 필요하다, 좋은 선생님과 책들과 실험실 등등이 필요하며 실습이 필요하다, 아름답고 좋은 건물들이 필요하며 좋은 의대 교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처럼 모든 시설을 가지기 원한다.

**(1)-2 전공: medical 15명**

**2.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실용적인 일을 위한 높은 수준의 시설이 필요하다, 훈련된 자격과 최상의 지식을 얻고 싶다, 좀 더 풍부한 기술과 지식을 얻고 싶다, 확실한 지식을 얻고 싶다, 우리 대학이 질과 수준을 겸비한 세계적 대학이 되길 원한다, 지식을 얻고 싶다, 좋은 자격을 얻고 싶고 최고의 지식을 얻고 싶다, 이 학교에서 좋은 지식을 얻고 싶고 사람들을 돕고 싶

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고 사람들을 돕고 우리 나라를 개발 시키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높은 수준의 교수들이 필요하고 둘째로 도서관 기숙사 컴퓨터 교실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이 대학의 축복에 의해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나라에 진정한 종이 되길 원한다, 아프가니스탄을 발전시키기 원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기를 원한다, 세계의 안식과 우리 나라를 도울 수 있기 위하여 좀더 나은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대학에 왔다.

### 3. 칸다하르 대학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지원해 들어 왔다, 칸다하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 대학 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학 중 하나기 때문에, 밝은 미래와 대학 학위를 갖고 싶어서, 아프간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칸다하르 대학은 입학 기준 점수가 낮아서 들어 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권유했고 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고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돕고 싶어서, 사회가 의사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해서, 왜냐하면 칸다하르에는 사람들을 도울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육의 결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칸다하르 대학에 나 자신을 바치기 원한다, 나는 의사를 사랑하고 의사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나는 약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다 법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 4.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나라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어서, 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필요하다, 의학에 흥미가 있었고 학교에서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사회에서 이름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나는 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우리학부를 선택했다, 사실 나는 친애하고 가난한 나의 나라를 섬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의학에 관심이 있었고 나는 반에서 좋은 성적이었다, 병원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의사들이 더 이상 없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분야를 좋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을 계획했다, 우리 가족이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 졸업을 하고 난 후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 5. 졸업 후 전공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나라를 섬기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

모든 사람을 돕고 싶다, 여러 나라를 돕고 싶다, 졸업 후 나는 의사로써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돕고 싶다, 우리 국민들을 돕고 싶다, 졸업 후 나는 다른 나라에서 더 교육받고 더 지식을 얻어서 내 전공에 있어서 더 전문화 되고 싶다, 만약 큰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내 전공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더 공부해서 크게 되고 싶다, 나는 밤낮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나는 교수가 되기 위해 좀더 공부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우리 민족들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의사가 될 것이다.

#### **6.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유는?**

원한다6-유학을 가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싶다, 나의 지식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25년간의 전쟁이 우리 교육에 있어서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 원한다, 지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기술과 실험을 포함한 강의를 듣기 위해,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 된다면 유학을 가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의학에 관한 더 넓은 지식이 없고 또한 병원에서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을 가고 싶다, 외국에 가서 더 진보된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진보된 기술을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싶다, 물론이다 왜냐하면 나는 잘 교육되고 진보된 다른 나라의 의사와 같은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 왜냐하면 나는 의학에 관해 좀더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의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실험실이 없다 그래서 나는 유학 가길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공부하기 위한 시설이 없다, 우리나라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유학을 하고 싶다.

#### **7. 유학을 하게 된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정착할 것인가? 이유는?**

돌아올 것이다6-나의 나라가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의 땅과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가르칠 사람을 필요로 한다, 나는 아프간사람이고 아프간사람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된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유학 후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이다,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공부 후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넓은 마음과 잘 교육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밝은 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마음과 같은 진심으로 약속한다, 나는 나의 나라를 돕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돌아 올 것이다,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 **\*\* 컴퓨터 강의는 유익하였는가? 앞으로 이러한 교류들이 유지된다면 어떠한 강의가 준비되길 원하는가?**

매우 좋았다, 최고였고 컴퓨터 방면에 관한 다른 코스도 원한다, 좋았고 유용했다, 좋았고 다른 코스도 원한다, 좋았고 더 공부하고 싶다, 매우 좋았고 다른 코스를 원하며 한

동 대학교와 컴퓨터 선생님의 도움을 원한다, 컴퓨터 강의는 매우 좋았고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코스를 원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심지어 내가 이 작은 종이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이었다, 좋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았다 그리고 나는 이것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도 원한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매우 좋았다 그리고 또 다른 코스를 원한다, 매우 좋았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다른 코스를 원한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1 전공: engineering 7명**

**1. 만족도**

(1) 수업의 질: 상3, 중4, 하

1) 교수당 학생수

①만족3 (이유: 45명당 교수 1명인데 그 정도면 괜찮다-3명)

②불만족3 (이유: 충분하지 않다-3명)

무응답1 (이유: )

2) 커리큘럼

①만족4 (이유: 이해하기가 쉽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1명, 이론과 강의-3명)

②불만족2 (이유: 오래됐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무응답1

3) 수업 자료, 기자재

①만족0

②불만족7 (이유:컴퓨터, 책, 프로젝터가 부족하다, 갖고 있기는 한데 수업하기엔 부족하다-2명, 우리는 수업을 위한 여러 기자재를 갖고 있지 않다-3명)

(2) 학교 시설: 상1, 중6, 하

1) 수업 시설(도서관, 강의실, 어학실, 전산실, 실험실 등)

①만족3 (이유: 지금 상황에선 괜찮지만 여전히 약점이 있다.-3명)

②불만족4 (이유: 도서관과 랩실, 전문서적이 없다. 학생은 많은데 자료가 부족하다.)

2) 생활 시설(기숙사, 식당, 화장실, 모스크, 휴게실 등)

①만족4 (이유: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②불만족3 (이유: 다소 괜찮지만 학생식당이 없고 전기문제가 있다)

3) 현재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며 이유는?

교수님과 전공서적(앞으로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 도서관이랑 컴퓨터교수랑 좋은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높은 교육을 위해), engineering faculty (아프간이 재건되기 위해서 engineering faculty가 필요하기 때문에)

**(2)-2 전공: engineering 6명**

**2.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교육되길 원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고등교육이 필요하

다, 지식을 얻고 싶다, 칸다하르 대학을 졸업하고 싶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칸다하르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3. 칸다하르 대학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칸다하르가 고향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지식을 얻기 위해 가장 좋기 때문에, 칸다하르를 사랑하기 때문에2명

**4.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엔지니어링 전공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유니세프의 엔지니어여서 그것을 본받고 싶었다, 조국이 많이 파괴되었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나라에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나도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다.

**5. 졸업 후 전공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나라를 재건하고 싶다,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건설회사에 취직하거나 외국 NGO에 취직하고 싶다, 건축사업을 하고 싶다, 건축계획에 참여하고 싶다.

**6.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유는?**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 기회를 주면 가겠다, 자격을 획득하고 싶다, 학문의 길이 넓어서, 정말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나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싶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하고 싶다.

**7. 유학을 하게 된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정착할 것인가? 이유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다, 돌아올 것이다, 본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모국이 나를 원한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나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 컴퓨터 강의는 유익하였는가? 앞으로 이러한 교류들이 유지된다면 어떠한 강의를 준비되길 원하는가?**

좋았고 공부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강의를 좋는데 좀 더 고급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을 배우고 싶다, 유익했고 다른 강의들도 필요하다, 매우 유익하였고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다, 매우 유익했고 앞으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4) 인터뷰**

**인터뷰1**

(2005-07-13 수요일/ AM11시-AM11시45분/중간에 칸다하르 대학생이 통역해 줌)

Education department 교수: Ajmal Khaliqi (26세, 전임, 카불 대학 학사)

연구비는 있으나 아주 부족함. 개인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며 월급은 200달러.

학생과의 교류시간: 매일 2시간씩 가지고 있음.

연구자재: 수업 기자재와 전공 교재들이 있기는 하나 아주 부족한 상태.

교수들의 재 교육이 필요한가?: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함.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매우 우수한 편임.

대학의 발전을 위한 필요: 외국에서 공부한 뛰어난 교수진과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절실히 필요함.

교수들이 칸다하르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다.

교수들의 지원 현황에 대한 카불대학과의 차이: 카불대학은 NGO나 다른 기업체에서의 지원이 확실한 반면 칸다하르 대학은 그러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칸다하르 대학에 지원하기 힘들어 한다. 또한 카불대학은 교수들이 다른 NGO나 기업체 내에서 다른 직업을 겸임할 수 있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만약 경제적인 면이 해결될 경우에는 많은 교수들이 지원할 것이라 확신한다.

카불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학생들의 수준: 카불대학 학생들이 훨씬 높다.

졸업생들의 현황: 비교적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몇몇의 졸업생들은 칸다하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른 학생들은 외부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어려움 :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파키스탄에서 공부한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했으나 그다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웃음)

## 인터뷰2

(2005-07-13 수요일/ AM11시-AM11시45분)

Education department 교수: 교수가 현재 9명인데 그 중 전임은 2명이고 전부 남자교수이다. 칸다하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산, 인터넷, 물리학, 수학, 영어, 화학(실험실), 생물학부 등이다. (폭탄 소리남) 폭탄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가르칠 수 있겠나? 교육학부가 매우 중요하다. 18명 정도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 칸다하르 대학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언어다. 남쪽에서 파슈토어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많다. 남부에는 헤랏 대학교와 칸다하르 대학 두 군데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들(탈레반, 알카에다) 등 때문에 북쪽으로 많이 가려고 한다.

Agriculture department 교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가 필요하다. 칸다하르 대학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상황에서 다른 곳의 보조가 없어 어렵다. 도움을 찾고 있다. 우리의 강의와 교수님은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님은 오피스가 있다. 나는 동물 파트와 매거진 파트를 맡고 있고 모든 학부는 섹션이 나뉘어져 있다. 연구자금이 충분한가? 없다. 농업학부에만 ARLDF의 보조가 있고 다른 학부들에는 보조금이 없다. 이것은 모든 파트에서 매우 필요하다. 교수간의 학술적 모임이 있는가? 있다. 각 학부에서 1, 2명의 교수가 모여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진다. 농업학부 내에서는 학술 모임이 있는가? 함께 모여서 일반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결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일반적인 문제들이란 시험 문제, 교육 문제, 교수 문제(교수 부족) 등이다. 왜 이 학교의 교수로 지원하였는가? 나는 우리 학생들을 보조하고 싶다. 나의 농업 지식을 통해. 아프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그것은 나의 책

임이다. 모든 교수님이 칸다하르 출신인가? 거의 99%가 그렇다. 1, 2명만 다른 곳에서 왔다. 칸다하르는 2번째로 큰 도시이고 매우 중요한데 왜 칸다하르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는가? 많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문제이다.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는가? 교수들의 월급이 매우 낮다. 나는 이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동물의 건강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해 만족하는가? 그렇다. 학생들의 숫자는 적당하다. 학교에 적당하다.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가? 그렇다.

농업학부 학생들이 졸업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곳에는 동물의 감염이 많아서 90%가 취업을 한다. 그들은 미래가 있다. 교수가 더 필요한데 지원하는 이들이 있는가? 있다. 만약 2명이 필요하다면 5명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러나 고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어렵다. 고용 기준이란 언어 정도, 학생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이다. 60% 이상 학생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내 경우에는 70%이상이다. 정년은 언제인가? 교수는 30~35이상의 나이 이고, 60세에는 가르칠 수 없다. 이 학교에서 계속 가르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돕고 싶고, 가르치고 싶다. 학교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는가? 교수들의 학력이 낮고, 공식적인 코스에 문제가 있다. 안전 문제, 물과 전기가 부족하고 수업자료와 시설도 부족하다. 이 학교에 전산학부를 만들고 싶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아직 없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산학부가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 문제는 교수다. 교수가 없어서 전산학부를 만들면 매우 좋지만 만들 수 없다. 한동대학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가? 우리를 자주 초청하고 방문했으면 좋겠고 많은 교류를 원한다. 한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다.

## 4 조사결과

### 1) 칸다하르 대학의 영적 중요성

칸다하르는 아프간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흑암에 붙들린 지역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칸다하르 대학교의 위상은 이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장이다. 칸다하르 대학은 이처럼 중요한 영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 칸다하르 대학의 변화는 곧 칸다하르, 아프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 2) 칸다하르 대학 상황

칸다하르 대학은 학교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건물은 신식건물이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학교를 운영해 나아갈 교수진과 직원들이 필요하다.

### 3) 학생 교수진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 예상외로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교수진과 교육의 질(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원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4) 구체적 협력방안

칸다하르 대학 인터넷 카페(Internet Café):

현재 칸다하르 대학이 IT와 영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건물에 2개의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하였음

2005년 10월 말부터 컴퓨터 교육과 연습을 위한 강의실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설치할 계획

-선교적 목표

- ① 칸다하르 대학생과의 교제권 확보
- ② 고용창출 및 수익을 통한 칸다하르 대학 재정적 후원
- ③ 한동대학과 칸다하르 대학의 구체적 협력을 위한 연결 포인트

# 제 4 장

## 사역보고서

## 1 사역내용

### 1) 기간

2005년 6월 30~2005년 7월 20일

(실제적 활동 기간 2005년 7월 3일~7월 14일 =11박 12일)

### 2) 지역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폴리클리닉, 칸다하르 대학교, 난민촌, 유목민촌

### 3) 구성

지도교수: 조원철(전공:산업정보디자인)

MFR 8기 훈련팀과 5기 미션팀: 9명

직원 및 기타: 2명(선린병원)

## 2 세부활동

### 1) 여성사역 및 어린이 사역

일시	장소	대상	사역자	사역세부내용
7/3 9:0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물리 치료센터 병원 장 아르간다비)		팀전체 현지사역 자	병원장 면담, 병원 둘러보기, 여성사역 장소와 물리치료실 확인하기
10:00	칸다하르대학		팀전체	문과학장 면담, 학교 돌아보기, 컴퓨터실 확인과 세팅
17:30	현지인 집 방문 (스포츠미)	어른:9 (아버지 포함) 어린이 :15	팀전체 포항한동 대학선린 병원의사 2명	10년 전 폭격을 맞아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는 '스포츠미'집을 방문. 어렵고 가난한 환경이지만 현지 사역자 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치 료를 받고 있으며 관계가 계속되는 곳임. 선린병 원 두 의사 선생님의 검사와 한국에서 들여온 에어매트리스를 선물하고 설치해 줌. 다른 방에 모여있은 여성들과 사탕을 나누고, 아이들만 모 아서 사진 찍고,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5일에 올 것을 약속함.
7/4 8:0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공중	여성:약 150명	김란주 장현주	30분 일찍 장식을 위해 병원에 도착. 이미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었음. 빠르게 풍선, 종이

	홀, 물리치료) 실	어린이: 약70~80명	이재연 박애라사 모님	등으로 무대 위를 장식하고 활동이 가능한 아이들은 밖으로 불러 어린이 사역을 진행함. 현지 사모님의 해석과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메인 진행자와 두 명의 보조 진행자가 여성 사역(스트레칭)을 시작. 스트레칭은 20분을 한세트로 목에서 발까지의 순서로 쉬운 동작을 기본으로 함. 한번은 천천히 설명과 함께 보여주기, 두번째는 따라하기, 세번째는 특별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노동과 과출산, 비만 등으로 여성 질병이 심각하며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한 운동과 물리치료가 절실함. 낫선 모습과 관습상 따라하는 수는 적었으나 매우 주의 깊게 보았으며 차후 집에서의 스트레칭에 중점을 두었음. 지원자에 한해서 준비해 간 사탕 선물을 줌. 간호사 방에 초대되었고, 내일 간호사들을 위한 스트레칭을 제안 받았음.
10:0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 (야외 뜰)	어린이,어 른들:약 80명	이바울 송진영	긴풍선으로 칼, 모자, 꽃등을 만들어 주고 동그란 풍선은 하나씩 나눠주고 사탕을 선물로 줌. 아이들뿐 아니라 야외라 남성들과 여성들도 관심을 보이며 풍선을 받아감.
	은혜샘 유치원	어린이: 약90명	김란주 이바울 장현주 송진영 이재연	은혜샘 유치원은 올 해초 현지 사역자들과 한국의 여러 후원을 통해 세워졌으며 한국인 자매가 담당 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한 10~12세 아이까지 등록인원 약 100명의 아이들이 있음. 지금은 3개월의 방학 중이지만 날마다 아이들이 놀러오고, 특별히 유치원 관리 아저씨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음. 사람들에게 겁을 내고 경계하는 아이들과 달리 인사하며 다가왔으며 바로 세계의 분반으로 나누어 분반학습놀이를 시작함. 젼가, 개구리잡기, 바람개비 만들기를 하였고, 끝내는 시간이 달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람개비 만들기에 몰려들어 집중적으로 만들어줌. 분반을 마치고 마당에 모두 모여 기타로 ‘즐겁게 춤을

				추다가' 놀이를 하고 축복송으로 마무리 하였음. 대문앞에서 한 사람씩 내보내며 연필한 자루와 유가 두개씩 선물로 줌.
7/5 8:0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 (공중 홀)	약100명, 간호사 :6명	김란주 장현주 송진영 박애라사 모님	간호사들을 위해 일찍 갔으나 홀을 꽉 채운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음. 사모님의 설명과 함께 스트레칭 두세트를 반복하고 적극적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스트레칭을 함. 간호사들을 따로 모아 스트레칭을 가르쳐줌.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어깨, 무릎, 허리,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힘들어하면서도 열심히 따라하였음.
9:3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 (물리치료실)	여성:약 15명	김란주 장현주 송진영 박애라사 모님	물리치료를 전공으로 한 한국인 치료사의 치료실과 마사지 기계와 적외선 치료기가 있는 곳으로 오전 동안만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소수가 치료를 받는 곳임.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함. 허리가 아팠으나 물리치료와 스트레칭으로 회복한 '바실리아'(만 15세)를 만나 스트레칭 자세를 잡아주고, 가르쳐줌.
15:00	현지인 댁 방문 (스포츠미)	어른:9명 (아버지, 아들포 함) 어린이 :15~ 20명	김란주 장현주 박애라사 모님	스포츠미와 여성들(어머니,며느리들)은 방에 모이고 아이들은 다른 방에 모임. 준비해간 십자수 5개를 한 사람씩 나눠주고, 스포츠미에게 자세히 알려줌. 아이들을 씻기려고 샤워도구를 준비해 갔으나 오늘 약속한 것에 맞춰 씻은 상태라 하지 않음. 한 부인에게 아이들이 6~7명이라 피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성들이 있어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기피임법과, 피임기구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며 설명함. 스포츠미는 손재주가 뛰어난데, 종이꽃을 우리에게 선물해줌.
	어린이 사역	어린이 :15~ 20명	이바울 송진영 이재연	긴풍선으로 왕관, 강아지, 꽃등을 만들어 선물함. 하얀 전지 위에 물감을 풀어 손바닥 찍기,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기를 함. 바람개비 만들기를 하고 모두 모여 축복송을 부르고, 준비해간 선물을 줌
7/6	칸다하르폴리클	약200명	김란주	첫번째 대기팀을 대상으로 한 번 반복, 두번째

8:00	리닉센터 (공중홀) (물리치료실)		박애라사 모님	대기팀을 대상으로 또 한번 반복함. 바실리아와 어머니, 그 외 대기 환자들의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가르쳐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풍선 놀이 하며 과자를 먹음
16:3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야외 뜰)  현지인 집 방문 (노리아)	약50명  여성어 른:5명 어린이 :10명	이바울  김란주 이바울	풍선 불어주고 만들어주기, 바람개비 만들기함.  현지인 사역자의 집에 가끔 일을 도와주시는 분 집에 감. 형제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대식구가 사는 곳임. 마당에서 여성들과 아이들 사역을 함께 함. 준비해간 5개의 십자수를 나눠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이지만 놀라운 속도로 하였음.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고, 가지고 간 홀라후프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줌. 아이들은 옆에서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 불기, 개구리 접기를 하고 함께 축복송을 해주고 마무리함.
7/7 6:30	UNHCR	약1000 가구. 아이들사 역인원: 100명 ~200명	팀전체	난민촌은 전쟁이나, 탈레반을 피해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주변국으로 떠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정착을 위해 1박2일간 마약, 지뢰, 모기 세 가지의 교육과 함께 개인당 정착금 8\$을 주는 곳으로 약300개의 '두디'를 여기저기 들려서 구입해 감. 먼저 교육 홀에서 가구당 등록서를 기준으로 두디를 나눠준 후, 난민촌 담당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모아 사역을 시작함. 한 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속 바람개비를 만들고 풍선을 준비하고 한 팀은 그 앞에서 노래와 율동을 함. 장소를 다른 홀로 옮겨 바람개비를 나눠주고 풍선과 머리끈, 사탕을 나눠 주었음. 밖에서는 연날리기를 하고, 다른 난민들의 교육을 위해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초대받아 다과를 대접받음.
7/9 8:0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 (공중 홀) (물리치료실)	약100명 여성:7명	김란주 박애라사 모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두번씩 스트레칭을 반복함. 대기실에서 스트레칭을 가르쳐줌. 온 몸 스트레칭 보다 허리와 배를 위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춤.
7/10 8:00	칸다하르폴리클 리닉센터 (공중홀)	여성: 100~ 200명	김란주 장현주 송진영 박애라사 모님	스트레칭의 효과를 보고 있는 바실리아의 나눔이 있고, 2명의 진행자가 스트레칭을 함. 지원자들과 간호사들을 따로 모아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해간 여행용 스킨, 로션 세트를 선물로 나눠 줌. 사람들은 스킨, 로션이란 걸 알지만 우리들이 나눠 준다는 것 때문에 어깨, 팔,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바르기만 하면 더 나올 듯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었음
	(야외뜰)	약50명	이바울	기타로 노래하고, 연 날리기를 함.
9:30	(물리치료실)	약10명	김란주	아이들과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율동을 함.
10:30	현지인 집 방문 (바실리아)	여성어 른:5명이 상 어린이 :5명	김란주 이바울 박애라사 모님	병원 사역팀과, 병원 간호사들이 함께 초대 됨. 손님 방과, 바실리아의 방을 구경하고 얘기를 나눔. 어린이 사역팀은 풍선, 사탕 나눠주기 바람개비, 놀이기구 만들기를 하고 점심 만찬에 초대 됨.
7/12 10:00	은혜샘유치원	어린이 :약100명	김란주 이바울 이재연	두 번째 만나게 된 유치원 아이들. 게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만 방에 모아 긴풍선 만들어 주기와 등근풍선 나눠주고 불어주기를 함. 마당에서는 두명씩 손 잡고 달려가 밀가루에 있는 사탕 먹기, 밀가루 머리에 그릇대고 옮기기, 손잡고 원만들어 돌아가기, 노래와 율동을 함. 아이들에게 축복송을 불러주고 비누방울을 불어주며 작별인사를 함. 현지인 아저씨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하였고, 아이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참여가 있었음. 유치원에 홀라후프, 공, 줄넘기 등의 기구와 색종이, 싸이펜, 물감, 크레파스 등의 학습 도구들을 선물로 줌.
13:00	현지인 집 방문 (유치원관리아 저씨)	어른 :10명이 상 어린이:	김란주 이바울 이재연	전통적인 다세대 주택으로 유치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 인사하고 약간의 공놀이를 함께 함. 점심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유치원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현지인들은 초대하는 것을 좋

		10명 이상		아하는데, 한번도 응하는 사람들이 없어 내심 속상했는데, 이렇게 온 것이 사역이라 하심.
7/13 15:00	현지인집 방문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	어른(아 들포함) :4명 어린이: (가족포 함):20 ~30명	김란주 이바울	폴리클리닉센터의 청소부로 일하시며, 남편없이 홀로 맹인 아들과 형제 한 가족과 사는 집에 초대됨. 시내 중심에서 30~40분 떨어진 곳으로 나라에서 땅을 주는데 현지 사역자의 도움으로 집을 세우고 새로 이사함. 차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긴 풍선과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는데, 동네 아이들과 유목민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오기 시작해 아이들 모두에게 풍선 모자와 둥근 풍선, 사탕을 나눠주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줌. 인사를 마치고 문구 용품과 놀이기구 용품을 선물로 줌.
18:00	현지인집홈스테이(1박2일)		여자팀원 들	폴리클리닉센터에서 가까워진 3명의 간호사 집에 팀 여자들만 두 명씩 나눠져 홈 스테이를 함. 외부인이자 여자들이라 집의 남자들과는 시간을 갖을 수 없고, 여자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냄. 저녁 식사를 하고,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헤나염색, 약세사리 구경하기, 텔레비전 보기 등 집마다 다양하게 시간을 보냄. 메론,가방, 문구용품, 놀이기구, 여행용 여성 화장품, 연을 선물로 줌. 하루밤을 묵고, 아침 식사를 한 후 다음날 아침 8시에 병원에 모임.
7/14 9:30	병원장집방문 (Dr.아르간다 비)		김란주 이재연 박애라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으나 출장 중이라 집에 초대됨. 30분 정도 사모님과 가족들을 만나 선물을 드리고 음료를 나누는 뒤 사진을 찍고 헤어짐.
16:00	유목민(텐트촌) 촌 방문	모두약 100~ 150명	팀전체	별관에 텐트를 치고, 유목을 하는 촌에 감. 화려한 복장과 거친 모습을 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몰려옴. 파트를 나누어 비누방울, 긴풍선 만들어 주기, 풍선,사탕 나눠주기, 연날리기, 바람개비 나눠주기를 하였으나 아이, 어른 구별없이 무질서하게 막 몰려들어 뺏기기도 하고, 위협적이라 그만두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울동을 함. 같이 노래 부르고, 축복송을 불렀는데 파슈투어가 통하지 않고 한국말로 불렀을지라도

				열심히 따라함. 모여서 사진을 찍는 동안 사모님은 아이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상태를 확인함.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른들이 무질서하게 오는 통에 약간 다치기도, 쫓겨 다니기도 했으나 갖고 싶어하고 관심 갖고 오는 그 마음을 이해하며 다음을 약속하고 헤어짐.
--	--	--	--	--

## 2) 컴퓨터 사역

날짜	시간	장소	사역자	사역세부내용
2005/7/03	9:35-11:00	칸다하르 대학교 컴퓨터실	조원철교수님, 훈련팀 7명, 미션팀 2명	교육학부장 만나고 컴퓨터실 및 학교 둘러봄, 학생들과 강의 시간 및 분반 결정
7/04	8:50-10:00		조원철교수님, 훈련팀 4명	칸다하르 대학생 약 60명에게 컴퓨터 기본 사용법과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가르침, 수업의 2/3를 참석한 50명 가량에게 수료증 발급
7/05	9:00-10:30			
7/06	9:00-10:30			
7/07	9:00-10:30			
7/09	7:30-10:30			
7/10	7:30-10:30			
7/11	7:30-10:30			
7/12	7:30-10:30			
7/13	10:00-11:30	칸다하르대학교 교육학장실	조원철교수님, 훈련팀 7명	칸다하르 대학교 교수 4명을 만나 인터뷰하고 노트북 증정함

# 제 5 장

## 영적보고서

## 1 영적보고서

### 1) 현지 상황 기도제목

#### (1) 인권

##### ① 억압된 여성들

아프간에 있는 동안 사역이 늦게 마치게 되어 어둑어둑 해진 뒤에 숙소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길가에 자매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남자였다. 밤에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갈 생각도 안하고, 집에서 내보내 주지도 않는다. 실제로 위험했다. 우리 일행이 부르카가 없어서 그냥 커다란 천(여기서는 폴라네이라 함)으로 얼굴을 겨우 가리고 갔는데, 길가의 여기저기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보냈다.

이곳의 여자들은 베일에 싸여 있다. 여자들이 낮에 다닐 때에도 어린아이와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르카로 얼굴은 물론 온몸을 가리고 있다. 오직 집안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나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여자들은 이름도 함부로 밖에 드러낼 수 없다. 종이에 어쩌다 적히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워야 한다. 이렇게 여성들은 억압을 받아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는다. 낙심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이슬람의 깊은 신앙을 가진 여성들은 이것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카를 답답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후 당선된 카이자르 대통령이 여성들이 부르카를 벗게 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플라(이슬람 지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 ② 일하는 어린이들

아프간에 도착하여 카불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반긴 것은 손바닥을 내밀며 구걸을 하는 시꺼멓게 때가 낀 어린 아이들이었다. 길가에는 아이들이 수시로 사 람들에게 구걸을 한다.

칸다하르에서 현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간 일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풍선을 불어주고, 수건 돌리기 같은 놀이를 가르쳐 주어 같이 놀았다. 평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일이 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고무줄 뛰거나 땅 따 먹기 같이 특별한 놀이가 없다. 풍선을 주어도 받고 좋아라 만 하지 제대로 가지고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유치원 교실에는 아이들에게 재봉 질을 가르쳐 주기 위한 스윙 기계가 있다.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배우면 옷을 꽤 잘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옷을 장에 가서 팔고 새 옷감을 사오는 모양이었다.

아프간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 빼고는 아이들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갔던 유치원도 아이들이 오전에만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대부분 일을 하러 나간다고 했다. 유치원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일하러 온 중, 고등 학생들도 만날 수가 있었다.

### ③ 기도 제목

- 이슬람 토대 위에 세워진 여성들을 억압하는 잘못된 관습들이 사라지도록
- 아이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맘껏 뛰어 놀며 교육 받을 수 있도록

## (2) 예배

### ① 헛된 곳을 향한 예배생활

카불에서 칸다하르까지 가기까지 현지인들과 같이 9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다. 보좌 없이 현지인들과 가는 것이 무섭긴 했지만 이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았다.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를 자주 세웠는데, 그 중에 기도시간을 위해 세운 적도 있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아무 것도 없는 허허 별판에 여기서 기 자리를 잡고 천을 깔고는 일정 방향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한다. 이슬람에서는 참된 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5가지가 있다. 신앙고백, 예배, 선행, 메카순례, 금식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얻지만 이들은 위의 것들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 ② 수많은 모스크와 이슬람 유적지들

우리 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 있듯이 아프간에는 한 마을에 적어도 하나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하루의 정해진 5번의 기도 시간마다 모스크의 지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그 시간마다 모스크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칸다하르에는 ‘바바왈리’의 무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슬람에서 유명한 지도자이다. 이 곳은 칸다하르 사람들의 소풍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런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알라가 더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많이 찾아온다. 바바왈리의 무덤은 상당히 화려한 대리석과 타일로 장식된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건물 주변에는 호화로운 호텔이 건설 중이다. 바바왈리의 무덤에서 수많은 계단을 밟고 한참을 올라가면 바바왈리를 따르던 제자들의 무덤이 있고 비단에 쌓여있는 코란도 있다.

도시엔 수많은 모스크가 있는 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는 아직 없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숨겨진 모임이 있을지도 모르나 아직까지는 드러내 놓고 예배를 드리기

는 위험하다.

③ 기도제목

- 아프간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 아프간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짐으로 수많은 모스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4) 교육

① 어려서부터 배우는 ‘코란’

은혜 유치원에서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코란을 외우는 소리였다. 궁금한 마음에 옆집에 놀러 갔다. 옆집에는 물라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코란을 배웠고 글을 알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 코란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도 단정하게 앉아 코란을 외우는 모습을 보니 처량했다.

아프간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코란을 배우고, 코란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교과목에 코란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울 수 밖에 없다. 칸다하르 대학에도 교과목 중에 이슬람과 코란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있다.

② 열악한 교육 환경

아프가니스탄은 공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우리가 방문한 칸다하르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지원이 미미해서 수업 기자재나 교수진이 턱없이 모자랐다. 그나마 있는 지원금도 정치관료들이 대부분 횡령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칸다하르의 전기 상황도 안좋아서 낮에는 발전기를 돌려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턱없이 낮은 교수들의 월급(200달러 정도)으로 인해 좋은 교수들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고 한다.

③ 기도제목

- 아프간 교육의 근본에 뿌리박고 있는 코란 교육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아프간의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2) 현지 사역 기도제목

(1) 사역자 분들을 위한 기도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역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① 기도제목

- 사역자 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길
- 사역자 분들을 통해 아프간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사역자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 사역자 분들의 언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이 종족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여주세요

(2) 전도 사역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해 현지 선교사님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 곳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현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미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제 막 복음의 싹이 피려고 한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① 기도제목

-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주세요

(3) 유치원 사역

칸다하르의 가난한 마을에서 한 자매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의 각 방에는 예수님의 탄생, 천지창조, 오병이어 등의 주제로 벽이 꾸며져 있다. 아직 성경을 가르치기는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코란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어서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치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지인 교사들과 같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① 기도제목

- 유치원 사역을 하시는 자매님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길
- 자매님이 같이 운영할 현지인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 유치원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 필요에 맞는 여성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4) 여성 센터 사역

칸다하르는 다른 지방에 비해 특히 보수적이라 아직도 여성들이 많이 억눌려 사는 편

이다. 글을 모르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과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만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 준비 중이다. 미용실, 커피숍, 음악 감상실, 컴퓨터 교육실, 영어 및 파슈투어 교육실 등을 갖춘 여성들만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① 기도제목

- 여성 센터를 위한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시길
- 준비하는 사역자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길
- 여성 센터를 통해 억압된 여성들이 영혼들이 자유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5) 물리 치료 센터 사역

칸다하르에서 최초로 물리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이 센터의 장을 맡고 있다.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매일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 진찰을 제대로 못해서 이곳에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컴퓨터 교육과 물리 치료사 보조 양성과정 등 또 다른 사역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주치의는 칸다하르에서 몇 안되는 믿는 사람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천대받는 하자라 족인데도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멀리 카불에서도 치료받으러 올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① 기도제목

- 물리치료센터의 믿는 현지인 의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